AUTHOR 이근삼

TITLE 칼빈의 유산

IN 고신대학보
(4, 1975): 47-49.

□서 평□

칼빈의 유산

〈The Heritage of John Calvin〉

Heritage Hall Lectures 1960-1970

Edited by John H. Bratt

W. B. Eerdmans, Grand Rapids 1973.

이 근 삼

미국에 있는 Calvin College가 현재 위치인 Knollcrest로 1960년대에 이전하여 새 도서관과 함께 Heitage Hall(遺産館)을 짓고 거기서 매년 칼빈, 칼빈주의, 이에 관계된 분야에 관한 특강을 갖도록 하여 그 강의를 1960—1970 동안 12편을 이 책에 수록한 귀중한 글들을 우리는 읽게 됐다.

이 특별강의는 종교개혁과 칼빈과 칼빈주의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이 해마다 한분씩 초청되어 깊이 있는 학적 소산을 남긴 동시에 우리들의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연구에 흥미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1. 교회의 교사인 칼빈 (John Calvin : Doctor Ecclesiae, by John T. mcneill)

칼빈의 생애를 잘 요약한 것으로 "교회의 교사"로서의 제네바 개혁자 칼빈을 특히 역설한다.

2. 토마스와 칼빈, 두 신학자의 비교(St. Thomas and Calvin as Theologian: A Comparison, by quirinus Breen)

2대(大) 신학자의 신학적 방법의 차이를 논하되 양자의 조화를 시도하지 않고 각기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 특이한 공헌을 한 것을 나타내려는 노력을 보여 준다.

3. 선교의 지도자 칼빈(John Calvin: Director of missions, by philip Edgecumb Hughes)

휴즈씨는 칼빈을 선교적 열심을 반대한 자 처럼 생각하는 칼빈 증오자들에게 칼빈이 선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렸다는 반증을 문서적 뒷받침을 가지고 잘 말하고 있다. 휴즈씨는 칼빈은 제네바에서도 복음 도확동을 전개한 것을 보아도 충

분히 증명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4. 제네바의 브라질 선교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by R. pierce Beaver)

많은 역사가들이 칼빈과 개혁주의 교회가 선교적 관심이 없다고 하나 칼빈의 성경주석을 보면 선교적 사상이 강하게 여기 저기에서 발견된다고 (딤전2:4; 사2:4; 미2:1-4 주석) 말하고 있다.

5. 스트라스벨그에서 칼빈이 배운 것(What Calvin Learned at Strass burg, by Franklin Littel)

Littel씨는 칼빈이 스트라스벨그에서 재세례파의 신학과 Martin Butzer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연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칼빈은 오히려 재세례파 사람들의 탈기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개혁신앙으로 돌이킨 사상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6. 칼빈주의 교회의 신문의 목적 (The Jntent of the Calvinist Liturgy, by J. H. Nichols)

개혁주의 예배의 근본적 요소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룬다. 설교, 기도, 성찬,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기독교강요 4:17:44에서 인용하고 이것을 Butzer Calvin service라고 하고 있다.

7. 개혁교회의 신문의 기원(The Liturgical Origins of the Reformed Churches, by Howard Hageman)

근대까지 개혁주의 교회들은 Petrus Dathenus에서 시작되는 교회의식을 사용하여 왔으나 Hageman은 이 교회의식의 기원을 16세기에서 찾아 내고 있다.

8. 칼빈주의와 관용(Calvinisn and Toleration, by Paul Woolley)

Woolley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칼빈이 참 열정적으로 진리에 헌신했다. 그런데 칼빈이 건전한 교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너무 공민법에 의존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칼빈주의는 더 급진적으로 확장됐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9. 칼빈주의와 미국의 혁명(Revolution, by Charles W. Akers)

미국 혁명시대에 있어서 와싱턴, 프랑크링, 그 외의 지도자들이 자연신론을 가졌던 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속에는 종교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10. 칼빈주의와 민주주의(Calvinism and Democracy, by Robert L. Kingdon)

교회정치에 "민주주의"란 용어를 적용한 사람은 Jean Morely 인 바 그는 불란서의 조합교회 첫 신자인 동시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용한 첫 사람이라는 것이다.

11.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 (Erasmus and the Reformation, by Clarence K. pott)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사상을 논하되 특히 루터와의 대립관계에 관심을 쏟고 있다.

12. 개혁주의 신학자로서의 아르미니우스(Arminius as a Reformed Theologian, by Carl Bangs)

이 강의에서 Bangs씨는 칼빈의 후예와 아르미니우스의 후예가 대조적으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자신이 본래 개혁주의 신학자였다는 점을 지지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 12 특강은 칼빈과 칼빈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에 관한 깊은 학술적 논문들로서 잘 알려지지 않는 면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여 준다. 칼빈주의 연구자들에게 읽어서 크게 유익한 책인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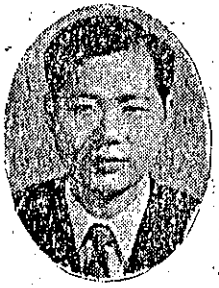
고려 신학 대학사 발간키로

본 대학 교수회에서는 「고려 신학 대학사」를 발간키로 하고 그 집필진을 허순길, 오병세, 이근삼, 정홍권 등 네 교수에게 위촉하기로 하였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의 수난사부터 본대학의 인가를 취득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본 대학의 역사를 지대성하게 될 이번 「고려 신학 대학사」 편찬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자료를 가진 분들은 본 대학 정홍권 교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요망하고 있다.

1. 본 대학에 관계된 문서
   ① 단행본　② 논문집　③ 기타문서
2. 본 대학 및 본 대학에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일화를 알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신 분
3. 이와 관계된 사진들 및 유물, 유품
4. 기　타

■ 개척교회순방 ■

어려움을 극복한 감천제일교회



감천 버스종점에서 약 500m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감천제일교회를 기자가 방문한 것은 황혼녘이었다.

감천 제일교회가 세워지기 까지는 무수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부터 10여년전 부산 부민교회 청년회에서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김 종만 전도사를 이 곳에 파송하여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김 종만 전도사의 불법목사 안수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가 교회를 혼란속에 몰아넣었고 심지어 예배당을 합동 교단으로 예속시키므로 71년5월7일 이 청우 집사 자택에서 몇몇 주의 뜻을 같이한 교인들이 감천 제일교회 발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감천 제일교회가 탄생한 역사다.

김 동철 강도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73년 4월 10일이었다. 그 때에는 교회는 창고모양에 흙바닥에 간이 의자 몇개의 초라한 교회당이었다. 그러나 교역자를 중심해서 온 교인들이 피와 땀을 쏟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봉사한 결과 지금은 63평의 대지 위에 33평 중이층의 아담한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장년 118명 학생 42명, 주교생 80명, 집사 1명, 집사피택 2명, 서리집사 9명으로 성장했다.

이곳은 태극도(본부가 있음), 자전도, 불교, 천도교, 미신, 무당, 점쟁이 등 사이비 종교의 일색과 결핵환자 장질부사의 환자들이 많고 물이 귀한 빈민촌으로 유명하다. 특히 태극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복음증거하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진 조개껍데기 같은 집들을 일일이 심방하기에는 너무 힘든 여건에서 사모님은 밤낮 쉬지 않고 교인들을 심방하므로 강도사님과 주님의 명에를 같이 하고 있다(기자가 갔을 때도 심방가고 없었다).

이 곳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극심한 가난에 쫓기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치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아직도 자립을 못해 부민교회에서 매월 6,000원의(청년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속히 자립하는 문제이다. 금년에는 교회당 헌당식과 집사 장립배가전도와 교인 180명 목표를 세우고 모든 교인이 일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